

12번

보조사 - 하나의 문장 성분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 문장 성분에 쓰일 수 있다.

보기 1번 - 삼촌이 밤에만 , 삼촌만 이곳으로, 나에게 삼촌만은

보기 2번 - 선수들이 오늘은, 그들은 이것을,

보기 4번 - 아이들이 악기도, 너도 악기를,

보기 5번 - 누나가 일기를 책으로까지, 어린아이까지 일기를 책으로

답 4번 - 한테, 보기 4번의 용례를 보면 '내가 친구한테 가방을 선물했다'에서 ~에게 라는 뜻을 가지며, 영어로 치면 4형식 문장의 간접목적어로 생각하면 편하다.

27번

열에 대한 저항성이 큰 미생물일수록 특정온도에서의 D값과 Z값이 크다.

보기 2번 - A가 B보다 Z값이 크므로 A가 열저항성이 큰 미생물이고, 따라서 같은시간동안 같은온도에서 열처리 하면 열저항성이 큰 미생물인 A가 더 많이 살아남는다.

보기 3번 - A가 열저항성이 더 크므로 더 오래 견딘다.

보기 4번 - A의 D값과 Z값을 통해 70도씨에서 5초동안 가열하면 1000마리에서 100마리로 감소하고, 마찬가지로 C도 70도씨에서 5초동안 가열하면 1000마리에서 100마리로 감소하는 것을 알수 있다. 따라서 둘의 개체수는 같다.

보기 5번 - B를 65도씨에서 5초동안 가열하면 100마리, C를 70도씨에서 5초동안 가열하면 100마리이다.

답 1번 - D값이 50초이므로 같은온도에서 개체수를 1/100로 줄이고자 한다면 D값의 2배의 시간으로 처리하면된다. 따라서 100초동안 열처리하면 각각 10개가 된다.

37번

주어진 보기를 분석해보자.

땅을 둘러싼 권력의 횡포를 비판하고 -> 선지 5번

뿌리 뽑힌 사람들의 삶을 서술자와 등장인물을통해 증언 -> 선지 2번

등장인물들은 절망의 나락에 빠지지 않는 저항적 주체의 모습으로 형상화 ->선지 3번에 일부 공동체의 고통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-> 선지 1번

부조리한 현실을 전달하고 증언하기 위해 서술자 '나'의 이야기를 창조 -> 선지4번

작가의 적극적인 현실참여의식이 가미

선지 3번을 보면 저항적 주체에 대한 내용이 약간 나오지만, 실제로는 주어진 보기와 큰 관련이 없는 '섬애기에 원천을 둔다' , '건우가 저항적 주체들의 중심인물이다' 라는 내용이 들어 있다.

=> 이런식으로 주어진 보기만 읽고도 문제를 풀 수 있다.

근데 수능이면 이려고 넘어가기 쉽지 않으므로 제대로 선지를 확인하자.

선지 1번 - '나'는 건우 할아버지와 윤춘삼의 이야기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.

선지 2번 - '나'의 이야기(=건우할아버지와 윤춘삼 씨가 들려준 조마이섬 이야기)가 건우의 <섬얘기>와 관련되 있고, 건우는 증언을 하는 인물이다.

선지 4번 - '나'의 이야기는 조마이섬과 관련된 일화를 다루고 있고, 현실(땅의 주인이 바뀌는 것)의 이면에 감춰진 부조리한 실상(원래 주인인 조마이섬 주민들이 땅을 뺏김)을 증언한다.

선지 5번 - 권력의 횡포(땅의 주인이 바뀌는 일)을 비판함.

답 3번 - 건우할아버지와 윤춘삼의 이야기가 건우의 <섬얘기>에 원천을 두고있는 것도 아니고, 건우가 저항적 주제들의 중심인물도 아니다.

41번

보기 1번 - 제비를 찾는 놀부의 행동 (인위적으로 상황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-1단계) , 욕망 실현을 위한 놀부의 조급성o

보기 3번 - 삼월 삼일에 제비를 들이모는 놀부의 행위(인위적으로 상황을 만들기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함)

보기 4번 - 구월 구일에 제비가 강남으로 들어감(제비다리를고쳐줌 ~ 제비가 박씨를 물고옴의 중간 단계이므로 2단계) ,놀부는 기다릴 수밖에 없음

보기 5번 - 보수표(원수를 갚는 박)가 주어지는 상황(제비가 박씨를 물고오기 직전이므로 2단계) -> 결과적으로 욕망실현이 좌절될 것을 알려줌

답 2번 - 한곳을 바라보니 한 짐승이 떠서 들어오니/‘제비 인제 온다’ -> 갈가마귀를 제비로 착각 -> 1단계에 속함

그러나 제비가 아닌 다른새들을 몰아내는 놀부의 모습은 적혀있지 않다.